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여성 정욕의 표출과 그 대응의 몇 국면

이주영*

<차례>

1. 금기와 위반의 형식, 여성 정욕 이야기
2. ‘부모의 명’·‘중매의 말’을 거스르는 욕망과 사전 교화
3. 정욕 실현 및 ‘불사이부(不事二夫)’ 위반과 사후 정치
4. 지속가능한 욕망 추구와 재가(再嫁)에 대한 용인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야담 중 여성의 적극적인 정욕 표출과 그에 대한 대응을 그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당시의 성적인 관행을 지배하는 것은 가부장제와 유교적 이념이지만, 여성의 성애(性愛)을 둘러싼 금기와 위반이 서로 길항하면서 서사를 구성한다. 또 여성들의 혼인 여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남성 유형, 남녀 인물의 계층, 여성의 욕망에 대한 남성들의 수용 양상 등이 서사를 다양하게 변주시킨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유형화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성적인 본능을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고백하거나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구애하는 처녀들의 이야기이다. 욕망의 대상은 주로 사대부 남성이다. 대개 사족(士族) 출신인 이 미혼 여성들은 상대 남성의 거절로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며, 대신 남성의 훈육을 통해 교화되고 개심(改心)한다. 회초리는 교화를 상징하는 사물이다. 그러나 여성이 상심하거나 열정을 이기지 못하여 교화되지 못한 상태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유가적 예교(禮敎)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드러낸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둘째, 외간 남자와 간통하며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유부녀들의 이야기이다. 비교적 신분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욕망은 동물적 본능처럼 표현되고 목격자 등에 의해 음란한 것으로 평가된다. 욕망의 대상 역시 낮은 신분의 남성이다. 간통을 저지른 남녀들은 욕망을 실현한 후에 목격자나 남편에 의해 징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징치의 명분은 유가적 도덕률이나 정의의 실현이다. 그러나 본능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이성적으로 자각한 남성 인물에 의해 징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고 균열적인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욕망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환관(宦官)의 처와 과부들의 이야기이다. 특히 <환처(宦妻)>의 여성 인물은 자신의 성욕을 적극적으로 충족하며, 상대 남성의 나약성은 여성 인물의 주체성을 부각시킨다. 환관 처와 과부들의 욕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해 재가(再嫁)라는 형식을 향한다. 여기에는 유가적 도덕률이나 윤리의식 대신 경제적인 보상 등 대가성의 문제가 개입하며, 이 경우 남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별다른 갈등 없이 욕망이 실현된다.

여성 정욕의 표출에 대한 서사는 여러 유동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며, 금기의 위반은 가부장제와 유교적 이념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인된다. 이 논문에서 살펴 본 대상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남성 중심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우회적으로라도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고 인정하고자 하였다. 또 성애를 둘러싼 금기와 위반의 형식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그 서사적 변주와 성 담론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여성 정욕, 금기, 위반, 유가적 도덕률, 가부장제, 야담

1. 금기와 위반의 형식, 여성 정욕 이야기

인간 욕망의 한 갈래인 애정 문제에는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성적(性的) 충동의 문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 규범화된다. 이것은 동

물적 열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에 가까운 것이다.¹⁾

조선이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라는 인식의 전제는 욕망의 절제를 강조한 유교 이념에 기반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성에 관한 담론은 유교와의 지속적인 길항 속에서 만들어져 왔으며, 조선후기에 형성된 성 담론과 문학적 재현은 유교의 억압이라는 균질한 틀로만 섹슈얼리티와 에로티즘의 문제를 보기 어렵게 한다.²⁾ 따라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적 욕망이 억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그 억압의 형태와 성적 이탈의 양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야기되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³⁾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여성 정욕의 표출에 관한 것이다.⁴⁾ 물론, 서사 내에서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은 대부분 혼

- 1) 인간의 성행위가 금기에 의해 금지를 당할 때 그에 대한 위반의 영역이 에로티즘의 영역이 된다. Georges Bataille 지음,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2009, 1~340쪽 참조.
- 2)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성리학에 입각한 유교사회로의 전면적 전환과 17세기 중반 이후 중벌적 가부장제 확립에 따른 상속제와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경미에 따르면, 조선후기 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상업의 발달, 주변국의 문화 유입, 도시 유흥의 발달 등과도 관련이 있고, 유교 이데올로기의 변화 및 가부장제 강화 등 조선후기 사회의 일상을 구성한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정에 대한 궁정을 토대로 남녀의 정욕을 본연적인 것이며 가장 진실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열녀의 증가와 열녀전의 창작 등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동성애나 다른 성적 취향에 대한 관심과 담론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의 담론화에 대한 유교적 통제가 약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경미, 『조선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128~139쪽 참조 ; 이밖에 성 담론에 대한 논의로는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9~43쪽 ; 진재교, 「조선조 후기 문예공간에서 성적 욕망의 빛과 그늘 -예교, 금기와 위반의 拮抗과 그 辨證法」,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87~126쪽.
- 3) 성이 억압되는 경우 성에 관해 말하고 성의 억압에 관해 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위반의 몸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ichel Foucault 지음, 이규현 옮김, 『성(性)의 역사-지식의 의지』, 나남, 2010, 13~14쪽 참조.
- 4) 야담에 나타난 남녀 간 애정과 성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최기

육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이 여성 형상은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굴절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성의 정욕 표출 자체를 금기 시하는 듯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여성들을 다양하게 그려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위반이 불가능한 금기란 없다. 위반이란 금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금기를 한번 걸어올리는 행위이며, 에로티즘의 근본이 거기에 있다⁵⁾는 것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당시의 성적인 관행을 지배하는 것은 가부장제와 유교적 이념이지만, 여성의 성을 둘러싼 금기와 위반이 서로 길항하면서 서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위반에 따르는 처벌의 양상은 거꾸로 그 금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즉 여성 정욕을 다룬 이야기들은 금기와 위반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들의 혼인 여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남성 유형, 남녀 인물의 계층, 여성의 욕망에 대한 남성들의 수용 양상 등이 서사를

속은 18·19세기 야담집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적 관점에 의해 선별된 것이고 그들의 모습이 남성적 시선에 의해 굴절되어 조명되거나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고 하면서 성이 담론화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 - 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6, 국제어문학회, 2002, 53~90쪽.;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a), 243~275쪽.; 최기숙, 『‘사랑’의 담론화 방식과 의미론적 경계 - 18·19세기 야담집 소재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b), 305~348쪽.; 광정식은 17~19세기의 문헌설화집에 여성의 성적 욕구와 규범 사이의 모순 문제가 드러나며 그 해결방법이 크게 열(烈) 우위와 성(性) 우위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광정식, 『조선 후기 문헌설화에서 살펴본 여성의 烈과 性의 문제』, 『인문과학논총』 11-1,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5~48쪽.; 이강옥은 야담에서 정욕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여성들을 본격적으로 고찰했으며 인물 형상과 서술방식에서 변주 양상을 포착하고 있다. 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175~217쪽.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는 세 가지 유형의 분류는 이강옥의 논의에 힘입은 바 크다.

5) Georges Bataille, 앞의 책, 39쪽 참조.

다양하게 변주시킨다. 여기서는 몇 가지 사례를 유형화하여 여성 정욕의 표출과 그에 대한 대응 양상을 고찰하였다. 첫째, 성적인 본능을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고백하거나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구애하는 처녀들의 이야기이다. 둘째, 외간 남자와 간통하며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유부녀들의 이야기이다. 셋째, 욕망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환관(宦官)의 처와 과부들의 이야기이다.

2. ‘부모의 명’·‘중매의 말’을 거스르는 욕망과 사전 교화

먼저 살펴볼 것은 ‘담을 넘어 선비의 방에 뛰어드는’ 처녀들 이야기이다. 여성이 월장(越牆)하여 남성에게 직접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다. 남성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는 글을 읽는 목소리나 멀리서 본 외모 등 간접적인 경험이며, 이를 직접적인 접촉으로 바꾸고자 하는 충동이 서사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 월장형 서사의 기본 형태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애정을 요구당하는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다.⁶⁾ 『어우야담(於于野譚)』에 실려 있는 ‘정인지(鄭麟趾)’와 ‘심수경(沈守慶) 일화’⁷⁾가 대표적이다. 선비가 글을 읽거나 가야금을 타자,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여인이나 궁녀가 들어와 구애한다. 선비는 정식으로 중매를 통해 혼인하자고 회유하거나 여인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 준다. 이후 남성은 자취를 감추고 여인은 상심하여 죽는다.

월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여성의 외간 남자 접촉을 금지하는 금기를 위반하는 것이며, 성에 대한 욕망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남성은 엄격한

6) 야담 중 여성이 월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강진옥, 『육구형 원혼설화의 형성과정과 변모 양상』, 『한국문화연구』 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3, 25~28쪽 참조

7) 유몽인 지음, 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668~669쪽.

태도로 여성을 꾸짖기도 하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사물이 바로 회초리이다. 『동괘낙송(東稗洛誦)』, 『청야담수(靑野談藪)』 등에 실린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이야기⁸⁾에서는 그의 책 읽는 소리에 반한 이웃집 처녀가 담을 넘어와 곁에 앉자, 정암이 여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오라고 시킨다.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맞은 여인은 감읍(感泣)하며 개심(改心)하고 돌아간다. 훗날 여인의 남편이 된 자가 기묘사화(己卯士禍) 당시 정암을 모함하자, 여인은 예전의 그 일을 남편에게 고백한다. 그러자 감동한 남편이 정암을 비방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정암의 엄격한 수기(修己)의 태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 여성까지 교화한 데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처녀가 욕망하는 대상은 당대 최고의 문사(文士)이며, 여성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인생 경로와 연결되어 인물 평가로 확대된다.

『양은천미(揚隱闡微)』에 실린 <조부인이 의기에 감동하여 기이한 원한을 해결하다(趙夫人感義解奇冤)>라는 이야기에서도 회초리를 통한 훈육이 여성 정욕에 대한 대응으로 작동한다. 상진(尙震)이라는 남성은 혼기가 왔으나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채로, 후원에 집 몇칸을 지어 홀로 거처하며 글 공부만을 일삼는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낭랑하여 책을 읽고 시를 읊을 때면 옥이 부서지는 소리와 같이 맑아 들을 만”⁹⁾했다. 그 이웃 재상 조씨(趙氏)가에는 아름다운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가 머무는 후원의 초당은 상진의 서재와 담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8) 노명흠 지음, 김동욱 옮김, 『국역 동괘낙송』, 아세아문화사, 1996, 437~438쪽.

9) 이신성·정명기 옮김, 『양은천미』, 보고서, 2000, 145쪽. 公之聲音清朗, 每讀書發吟, 其聲如碎玉, 朗然可聽, … 번역본을 인용한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과 표점을 수정함. 이하 동일.

때는 마침 8월 보름밤이었다. 달이 밝디밝아 대낮 같았고, 은하수는 반짝 반짝거렸으며, 옥 같은 이슬이 떨어지고, 바람은 친철히 불어와 사람의 가슴을 상쾌하게 하였다. 이때 문득 글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맑고 고우면서도 절조가 있고, 상쾌하고 낭랑하여 참으로 무수한 정회를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친 흥이 일었다. 처음에는 딸을 거닐면서 듣다가, 다음에는 담장 아래에 몸을 기대고 듣다가, 끝내는 정을 이기지 못하고 담을 넘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걸어 공의 방으로 들어가 문 앞에 섰다. 공이 머리를 들어 한번 보니 아직 시집가지 않은 규중처녀였다. 공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글 읽기를 계속하다가, 한참 뒤에 책을 덮고 물었다. … “첩은 바로 이웃집 조공의 딸입니다. 날마다 후원 초당에 거처하며 바느질만 익히고 있었습니다. 가법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한 걸음도 문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공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움틀거리고 정신이 흔들려서 저도 모르게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사랑해 주옵소서.”¹⁰⁾

욕망에 이끌린 처녀의 내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지체 높은 재상가의 딸로 바느질만 익히는 규중처녀의 이상형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비일 것이다. 가법이 매우 엄해 한 발짝도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처녀가 남자의 목소리만을 듣고 정육을 자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흥미롭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청각적 표현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글 읽는 소리가 상징하는 이성적인 모습에 반해 열병을 앓는 것이다.

10) 『양은천미』, 145~146쪽. 時值仲秋望夜，皎皎明月，如同白晝，銀河耿耿，玉露零零，商飈徐起，令人爽懷。忽聽有讀書之聲，乘風而至，其聲清而有節，雅而有操，爽爽朗朗，真個撼出無數情懷也。那女子，不覺狂興蕩漾，初焉，散步中庭而聽之，再焉，側身墻下而聽之，末乃不勝情緒，輒踰墻，潛步而入尙公之房，立于門首。尙公擡頭一見，便是未嫁閨女也。畧不動念，誦讀不綴，良久掩卷而問曰：… “妾是隣家趙公之女也。日處後園草堂，專習針工，而家法甚嚴，不得窺戶外一步。今忽聽公之讀書聲，情懷萌動，神魂飄蕩，不覺踰墻而入，願公愛之焉。”

남성의 모습은 이와 대비된다. 모르는 여성의 난데없는 난입과 구애가 공 포스러울 법한데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상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공 부를 계속하는 완벽한 자기절제를 보여준다. 그가 실행하고 있는 경전(經典) 읽기가 바로 이성과 이념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은 얼굴빛을 바꾸고 꾸짖으며 말했다. “당신은 시집도 가지 않은 재상 집 딸로, 부모의 교훈을 받들어 행실을 닦으면서 부지런히 여공(女工)을 익혀서 가훈을 실추시키지 않음이 옳거늘, 어찌하여 밤을 틈타 담을 넘어와서 남자를 몰래 엿보시오? 이게 무슨 도리요? 이것은 집안을 더럽히는 난잡한 행위이니 어찌 부끄럽지도 않소? 내 이제 당신의 부모를 대신하여 당신을 가르칠 것이니 당신은 마음을 바꾸고 허물을 고치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서침으로 그녀의 종아리를 때리니, 피가 흘러 얼룩이 졌다.¹¹⁾

처녀의 고백을 들은 상진이 곧바로 처녀를 꾸짖는다. 흥미로운 지점은 처녀의 월장이 난잡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처녀의 부모를 대신하여 처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혼 여성의 욕망이 부모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서침(書籤: 책 겉장에 붙이는 표제를 적은 종이)을 사용해 처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장면에서이다. 이는 남성의 경직된 태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교적 이념의 실천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육체와 정신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회초리로 때렸는데 개심했다는 것은 육체를 자극해서 정신이 변화한 것이며, 감정에 들뜬 몸을 자극하여

11) 『양은천미』, 146쪽. 公乃勃然變色，厲聲而言曰：“爾是宰相家未嫁女子，承奉父母之訓，着心修行，勤習女紅，不墮家訓，可也。奈何乘夜越牆，潛窺男子，是何道理？此汚家門之亂行也。寧不可羞？吾今替爾父母，出力教爾，革心改愆。”卽以書籤，施撻楚於女，腿上血流斑斑。

이성을 깨우는 방식이다. 또 옷을 걷게 하고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 자체는 덜 에로틱하지만 이성의 신체를 엿보거나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하다. 책 읽는 소리에 반해 월장한 처녀의 고백에 대해 남성이 책의 일부분을 사용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점은 일견 도착적이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여성이 개심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회초리로 매를 때리고 맞는 행위에서 성적 충동에 관한 열망과 이성적 사고에 대한 열망이 일치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훈육의 결과로, 여성은 다시 ‘정숙한’ 상태로 돌아간다.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다른 남성과 혼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활동할 자손을 생산해 낸다. 먼 훗날 상진은 며느리를 겁탈했다는 죄로 피소되는데, 이를 다스리게 된 판리가 바로 조씨부인의 두 아들이었다. 상진의 혐의 내용을 들은 조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진의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자신이 평생 간직한, 회초리 맞을 당시 피가 얼룩졌던 속곳까지 꺼내어 보여준다. 이것은 본능과 이성의 치열한 투쟁의 흔적이며, 잠깐 음녀(淫女)가 되었다가 다시 순결한 상태로 돌아간 것의 물증이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이성적인 남성인물을 향한 것이었고, 회초리를 통해 이성을 깨우는 방식, 즉 욕망의 실현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화하는 방식으로 해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신분이 명확히 사족(士族)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을 다시 윤리적으로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긴 까닭도 있는 듯하다.

이와는 달리, 파국으로 치닫거나 갈등관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도 있다. 『삼교만록(雪橋漫錄)』에 실린 <심심당한화(深深堂閑話)>¹²⁾ 제2화에는

12)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1, 창비, 2018, 292~307쪽. <심심당한화>라는 제목은 이 책을 따른다. 작자인 안석경(安錫敬)이 신사겸(申士謙)의 심심당에서 다른 사대부들과 어울려 한담한 이야기를 기록한 형식이다. 연속된 6편의 이야기 모두 남녀 관계를 주제로 하며, 각각의 이야기 말미에 그에 대한 평을 붙이고 있다.

책을 끼고 왕래하는 조광조의 모습을 엿보고 상사병이 든 이웃집 처녀가 나온다. 여성이 직접 정암의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여인의 병이 위중한 것을 전해들은 그의 부친이 아들에게 이 사정을 전한다.

“너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야 하지 않겠니?” “저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살릴 만하면 살려야지요. 하물며 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에 공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비록 관청 아전으로 신분이 미천하나 그 딸은 처자이다. 네가 첩으로 받아들이면 예의에 어긋날 것이 있겠느냐? 그 소원을 풀어주도록 하여라.” “여자가 부모의 명과 중매의 말에 의하지 않고 사사roi 남자를 엿보아 음심이 발동했으니, 그 허물이야말로 죽어도 죽히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예의로 가르치심이 마땅하거늘, 어찌 소자로 하여금 음녀를 취하라 하시옵니까?”¹³⁾

정암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살려야 하는 상황이면 살리겠다고 말했지만, 여인의 구애 사실을 듣고는 단칼에 거절한다. 부부관계는 남녀 사이에서 가장 규범화된 관계이고, 결혼이라는 전제는 여성의 정욕과 관련하여 가장 큰 금기를 제시한다. ‘부모의 명’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혼인 절차, 즉 육례(六禮)는 혼인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데 여인의 구혼은 이를 제대로 밟은 것이 아니다. 또 구애 자체도 ‘중매의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아버지가 정암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뒤흔한 구혼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절하기도 했지만, 궁극

13) 『이조한문단편집』 1, 296쪽. 원문은 『이조한문단편집』 4의 해당 부분을 따름. “人有由我而死者，活之否乎？” 對曰：“雖未由我而死者，可活則活之，況由我而死者？” 公乃言，而指其人曰：“彼雖府胥賤流，其女乃處子也。汝則妾畜之，何害於義？汝必許之。” 對曰：“其女不由父母之命·媒妁之言，而私窺男子，至生淫心，此其罪也，死無足惜。大人當訓子以義方，何至使兒取淫女乎？”

적으로는 자신을 사사로이 엿본 것이 음란하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여성 정욕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느끼는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심심당한화> 제4화 ‘이자의(李諮議)’ 이야기에서는 여성의 정욕 표출과 남성의 거부가 정면충돌한다. 이자의가 먼 길을 가다가 어느 객점에 들었을 때, 책 읽는 소리를 들은 한 처녀가 정념을 이기지 못해 깊은 밤중에 대뜸 그의 처소로 뛰어든다.

이자의가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 물었다. “귀신이오, 사람이오?” “사람입니다.” “천인이오, 양반이오?” “토관의 딸입니다.” “시집갔소, 안 갔소?” “처녀입니다.” “남녀가 유별하니 비록 천인의 딸이라도 담을 넘어 남자를 만남이 옳지 않거늘, 하물며 토관의 딸인데야. 어서 돌아가시오. 어서 가요.” “예의를 모르는 바 아니오나 여자의 정이 승하니 어찌합니까? 오늘밤 죽어도 못 물러가겠습니다.” 이자의가 심한 언사로 기어이 거부하여 크게 꾸짖는 소리가 났으나, 처녀는 끝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오늘밤에 있습니다. 제발 예의는 덮어두세요. 저도 그쯤은 모르지 않습니다.” … “여자의 몸으로 밤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미 절개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진정하시고 잠깐 손님과 조용히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고 말겠어요.” … “여식이 절개를 잃는 것이 눈앞에서 죽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네깃 년, 실절하는 꼴보다 차라리 죽는 꼴을 보겠다.”¹⁴⁾

14) 『이조한문단편집』 1, 300쪽. 李諮議正襟危坐而問曰：“鬼乎人乎?” 曰：“人也。” “賤人乎? 貴族乎?” 曰：“土官之女也。” “已適人乎? 未適人乎?” 曰：“處子也。” 曰：“男女有別, 雖賤女不可踰牆而從男兒, 況土官之女乎? 速起而去, 速起而去。” 曰：“非不知禮義, 奈兒女之情勝何? 今夜之事, 雖死不可退。” 李諮議苦口堅拒, 至發呵叱, 終不退. 而但曰：“殺我活我, 只在今夜. 莫言禮義, 吾非不知也.” … “女身, 夜深致此, 已失大節矣. 豈望爲完人乎? 願大人少徐之, 俾得與客從容, 不然則吾必斃於此矣.” … 女曰：“使兒失身, 不猶愈於徑斃目前乎?” 女父大怒曰：“與其失身,

남성은 여성을 야단치며 돌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여성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자의는 객점 주인을 통해 그 아버지를 불러 오지만, 아버지에게도 야단을 맞은 여인은 혀를 깨물고 머리를 부딪쳐서 죽고야 만다. 그녀가 원한 것은 남성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성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바로 그 아버지를 불러오며, 아버지는 딸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그녀의 행위만을 비난한다. 이 이야기는 여성의 정욕 표출에 대한 부모의 간섭과 통제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혼전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의 욕망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부장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지되었기에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에로티즘의 속성상, 표현의 봉쇄로 인해 충동을 극단까지 연장한 그녀는 끝내 죽음을 택하고야 마는 것이다.

죽은 여자가 원혼이 되어 보복한 탓에 이자의의 일이 풀리지 않았다는 후일담은 여성을 자결하게 만든 남성의 융통성 없는 행동을 책망하기 위한 기제이다. 뒤이은 서술자의 평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상당히 긍정하고 있다. 남성인물이 정욕을 표출하는 여성을 개심시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부족하고 졸렬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여성이 교화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유가(儒家)적 예교(禮敎)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때 여성들의 신분에도 주목해야 한다. 혼육을 통해 개심하는 여성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여성들의 신분이 아전이나 토관(土官)의 딸 등 사족 계층이 아닌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교화시킬 수 없는 여성을 사족층의 바깥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절제와 이성의 영역으로 나아가 수 없는 여성들은 성적 충동을 죽음 충동으로 치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타자화되었던 것이다.

寧見徑艷.”

3. 정욕 실현 및 ‘불사이부(不事二夫)’ 위반과 사후 징치

처녀들의 정욕 표출은 한때의 미숙함으로 처리되지만,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유부녀의 정욕 표출은 가정과 사회질서에 큰 위협이 된다. ‘불사이부(不事二夫)’ 해야 할 유부녀들의 정욕은 주로 간통을 통해서 그려지며, 이들은 뉘우침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동패낙송』, 『청야담수』와 『양은천미』 등에 실린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이야기는 욕망을 표현하는 유부녀의 음란함을 부각시키고 이 여성에게 부과된 현실적 금기가 남편의 통제와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웃집 아낙이 스무 살쯤 되었는데 제법 아름다웠다. 그녀는 공의 용모가 단아하고 풍채가 출중함을 보고서는 마음에 간절히 연모하여 한번 토정과 정을 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매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분칠을 하며 꾸밈을 가지런히 하여 공의 곁에서 뜻을 다해 모셨지만 공은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낙네는 자기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남편을 재촉했다. … “이 여편네가 필시 집에서 글 읽는 젊은이와 사통함이 있는 게야. 내가 있으면 희학질하는 데 불편하니 나를 꺾박하여 행상을 가도록 한 것이야. 내 꼭 멀리 가지 않고 그 동정을 엿보아 정말 소년과 사통하면 반드시 둘을 죽여서 분을 풀리라.” … 이공은 등불을 밝히고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아낙네는 곁에 앉아 음란하고 외설스런 말로 희학질했다. 공이 절대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아낙네는 희학질을 그치지 않았다.¹⁵⁾

15) 『양은천미』, 187~189쪽. 其隣舍主婦, 年可二十, 頗有資色. 見公之容貌端雅, 風采出衆, 心切艷慕, 思欲一通其私. 每油頭粉面, 粧飾整齊, 極意周旋於公之左右, 公畧不動念. 那婦疑以其夫在家, 不便下手, 乃促其夫曰: … “此婦必有私於在家讀書之少年. 以吾在家, 不便戲謔, 所以迫我行商. 吾不必遠去, 吾將窺其動靜, 果與少年有私, 則吾必兩殺之, 以雪吾憤.” … 李公明燈讀書, 其婦坐於其傍, 以淫褻之言, 戲謔之. 公絕不顧眄, 其婦戲之不已.

토정에게 반한 여종이 자신의 남편을 출타시킨 뒤 토정을 유혹한다. 유부녀의 경우 처녀에 비해 그 성적 유혹이 더 노골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토정 또한 여인에게 서침으로 회초리질을 한 뒤 쫓아낸다. 색(色)에 대한 경계나 절제는 도(道)의 추구하고 같으며 토정의 대응방식은 균자다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은 더 음란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한 여종의 남편이 토정의 스승인 서경덕(徐敬德)에게 이를 알린다. 여종의 정욕을 관리하고 일탈에 대해 징치해야 할 남편 역시 신분이 낮기 때문에, 여성의 정욕 표출에 사대부 계층의 교정이 가해진 것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유부녀의 정욕 표출은 무질서한 것으로 그려진다. 『청구야담(靑邱野談)』의 <상서 홍우원이 회초리를 맞고 나서 죽음을 모면함(洪尙書受挺免刃)>에는 유부녀의 정욕에 대한 상반되는 두 서사가 담겨 있다. 상서(尙書) 홍우원(洪宇遠)이 아직 급제하지 않았을 적에 지방의 한 촌가에 묵은 적이 있었다. 노부부가 친척집에 간 사이에 그 집의 젊은 며느리와 한 방에 들만 있게 된 홍우원은 그녀를 유혹하며 여러 차례 추행한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의 의리를 말하며 회초리로 홍우원의 종아리를 때린다. 유교적 예교는 이제 평민 여성에게까지 내면화된 것이다. 그러나 홍우원은 곧바로 이 여성과는 대조적인 여성을 만나게 된다.

이 날 그는 다시 이삼십 리를 가 날이 저물고 역참을 지나온 터라 다시 한 촌가를 찾아 묵고 가게 되었다. 이 집은 한 부부만이 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주인은 이렇게 아뢰었다. “소인이 마침 긴한 일이 있어서 십 리쯤 되는 곳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야 돌아올 겁니다.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 그는 어젯밤 일을 거울삼아 다시 사특한 생각을 먹지 않았다. 그런데 밤이 깊어진 뒤 그 여자가 홍우원을 불렀다. “위 칸은 아주 썰렁하답니다.

손님께서는 춥지 않으신지요? 목을 데를 아래 칸으로 옮기셔서 저와 함께 목는 것이 어떠신지요?” 홍우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으나 그녀는 두세 차례나 들어오라고 청하였다. 그래도 그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녀가 하는 것을 보니 필시 문을 열고 자기 쪽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등을 문고리에 바짝 붙어서 꺾 힘을 주며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과연 그녀는 몸을 굴러 문지방 쪽으로 접근해서는 백방으로 유혹하여 문을 밀려고 했으나 끝내 열 수 없게 되자 화를 버럭 내며 야유와 욕을 퍼부었다. “젊은 사내가 여자와 방을 함께 쓰면서 한 점 정욕도 없다니 고자가 아닌가? 어찌 이렇게 멋이 없는지?”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거친 욕을 쉴 새 없이 해댔다. “손님이 아니라도 내 다른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마침내 발을 들어 앞창문을 차서 밀치고 나가더니 어떤 총각놈을 데리고 와서는 음란한 짓거리를 질펀하게 하더니 곧 서로 안고서 똥아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이 돌아와서는 곧장 그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칼로 저들 남녀를 찢러 죽이고서는 바로 밖으로 나왔다.¹⁶⁾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없이 내뱉고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여성이다. 정욕의 대상에는 눈앞에 있는 선비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온 다른 젊은 남성도 포함된다. 이 음란한 여성과 젊은 남성은 결국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전날 밤 다른 여인을 유혹했던 홍우원은 자

16) 其日，又行幾十里，值日暮違站，又尋一村舍而寄宿焉。其家只有一夫一妻，夕後，其主人告曰：“小人適有緊關事，將往十許里地，明早當還，請客主善爲安寢焉。”… 洪懲於昨夜事，更無邪念矣。夜深後，厥女呼客主曰：“上間甚疎冷，客主得無寒乎？須移處下間，而與我同宿如何？”洪答以不寒，厥女數次請入，而終不聽。觀其女所爲，必有開戶出來之慮，以背緊帖於門扇而鎖之，俾不得推出。果然厥女，轉輾下至於門闕，百般誘說，終欲推門而不得，乃大怒譏罵曰：“年少男兒，與女子同房，而無一點情慾，無乃宦者乎？何其沒風味若是乎？”狼藉醜辱，喃喃不已，曰：“雖非客主，豈無他人？”遂舉足推擲前窗而出去，携何許總角而來，爛熳行淫，仍卽相抱而熟睡。少頃，其夫還來，直入其房，一刀并殺其男女，仍卽出來。『청구야담』(10권 10책,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권1 제9화).

신을 유혹하는 여인에게는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가 겪은 두 가지 일은 유부녀에 대한 성적 흥미와 함께 성적 일탈에 대한 도덕적 징치라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여색을 몹시 밝히는 사대부가 어떤 여인을 발견하고 겁탈하거나 간통하기 위해 뒤따라가는 내용도 한 유형을 이룬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간부(姦夫)가 존재하고, 이를 목격한 사대부 또는 본 남편이 두 사람 또는 간부를 잔인하게 징치한다.¹⁷⁾ 『계서야담(溪西野談)』, 『동야휘집(東野彙輯)』, 『기문총화(記聞叢話)』, 『청야담수』 등에 실려 있는 ‘한 유생(儒生)’ 이야기에서는 소복을 입은 여성을 겁탈하려고 따라가던 한 유생이 이 여성이 중과 간통하는 것을 목격한다.

숨을 죽이고 엿보니, 여자가 농을 열고 비단 이불을 꺼내어 깔았다. 담배를 피우며 등불 아래 앉아 있는데, 마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양 하였다. 그러자 유생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의아하게 여겼는데, 조금 있다가 후린 죽림에 인기척이 있었다. 유생이 놀라 몸을 숨겨 피하고 보니, 한 대머리 화상이었다. 죽림을 헤치고 와서 뒤창을 두드리자 안에서 문을 열고 맞았다. 유생이 뒤에서 엿보니 그 화상이 여자를 끌어안고 음란하게 희롱하는데,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다. … 다시 중과 더불어 한바탕 음란한 희롱을 하더니, 알몸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 서로 안고 누웠다. 이때 유생은 처음에 간음하고자 했던 마음이 구름과 안개가 흩어지듯 사라지고 분개하는 마음이 더욱 격동했다.¹⁸⁾

17) 이는 서술자의 시선과 맞물려 관음증의 구도 및 ‘음탕한’ 여성을 응징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강욱, 앞의 논문, 186~198쪽 참조.

18) 유화수 옮김,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469~470쪽. 屏氣窺見, 則女子開籠, 而出鋪錦衾. 吸烟草而坐燈下, 若有所思想者. 然儒生, 心竊訝之, 少焉, 後園竹林有人跡. 儒生驚恟, 隱身以避而見之, 一禿頭和尚, 披竹林而來, 叩後窓, 而自內開窓迎之. 儒生隨後窺見, 則其和尚摟抱其女, 淫戲無所不至. … 又與僧一場淫戲, 而裸體

이 여성은 남편이 공부하러 간 절의 주지와 간통하게 되었고, 이 중이 남편을 살해하여 시신을 유기했다. 사실을 알게 된 유생은 활을 쏘아 중을 징치하고, 이 여인과 중의 범죄를 세상에 알린다. 가족들은 유생 덕에 남편의 시체를 찾게 되고, 여인은 친정 식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 후 유생은 혼령의 보답으로 급제한다는 이야기이다. 상복을 입은 여인을 겁탈하겠다는 유생의 욕정은 중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유교사회의 주체이자 ‘정의의 실현자’로서 선비의 정욕은 큰 문제가 없다.¹⁹⁾ 자신이 먼저 여인을 성적인 존재로 대하였지만, 여인의 간통을 목격하고 그녀를 교정해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유부녀에 대한 성적 충동을 실현하고자 했던 남성일지라도 그 여인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두 남녀를 처벌하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도덕의 대변자로 자처²⁰⁾한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신분에 말미암는 바가 크다. 음녀와 간통하는 남성은 주로 중이나 천민 같은 신분이 낮은 계층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서사 구성에서 도덕적 우월감을 지닌 사대부 계층의 타 계층에 대한 타자화가 실행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신분에 관계 없이 내면화되고 있었던 낚새도 엿볼 수 있다. 『이순록(二旬錄)』에 실려 있는 <용산 차부(龍山車夫)>가 그것이다.

용산의 한 차부가 서울 성안으로 집을 운반하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

同入衾中，相抱而臥。此時，儒生初來欲奸之心，雲散霧消，而憤慨之心，倍激矣。

19) 이강옥은 이에 대해 서술자가 성적 타자인 여인의 정욕과 유교 사회 밖 인물인 주지의 정욕을 인정하지 않고, 유교사회의 주체인 선비의 정욕만 용인한 셈이며, 정욕을 마음껏 충족하는 태도 신분과 성 차별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강옥, 앞의 논문, 190~191쪽 참조.

20) 최기숙(2003a), 272쪽.

가는 길이었다. 수각교 길가 인가의 벽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머리 위에서 나는 말소리를 듣고 올려다보니 다락 창문에 한 미인이 몸을 반쯤 숨기고 차부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잠깐 후문으로 들어오세요.” 차부는 심히 의아했으나 급히 부르기에 우선 들어가 보았다. 그녀는 나이 갓 스물로 자색이 어여쁜 여자였다. 그녀가 차부를 반가이 맞아들어 자리에 앉히더니 차고 가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누군가 물어보니 별감인데 오늘밤 숙직하러 들어갔다고 했다. 차부가 소를 다른 곳에 맡기고 오겠노라고 하자, 그녀는 언약을 잊지 말라고 두번 세번 당부했다. 차부는 소를 성안의 객주집에 맡기고, 다시 후문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에 서서 고대하고 있었다. 저녁을 성찬으로 들고 나서 여자는 곧 동침하기를 청했다. 차부가 망가진 샷샷, 누더기 옷을 한구석에 벗어 던지고 여자와 비단 이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니, 음란한 행위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²¹⁾

여자는 차부가 소변을 보는 것을 엿보고 그를 끌어들인다. 선비의 글 읽는 소리를 듣다가 달려들었던 여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신분이 천민인데다 망가진 샷샷, 누더기 옷을 입은 차부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그녀가 빠져든 것은 차부가 상징하는 야성의 영역이다. 이 여인은 궁정에서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별감(別監)의 처이다. 차부와 교합을 하는 도중 남편이 집에 다녀가고, 이 여인은 남편의 성적 요구를 뿌리친다. 이것을 기점으로 이 차부는 감정이 변화한다.

21) 『이조한문단편집』 1, 429~430쪽. <용산 차부>라는 제목은 이 책을 따른다. 龍山車夫, 嘗解卜京城, 日暮還家. 適放溺於水閣橋路邊人家壁, 後忽聞頭上有聲. 仰見則上有樓窓, 而一美人半身隱樓, 招謂車夫曰: “暫從後門入.” 車夫心甚疑訝, 第以急請, 果入去. 女年纔二十, 極有恣色, 權喜迎坐, 仍請留宿. 問其本夫, 以別監方入直云. 車夫以牛隻區處後, 更來云. 女申託踐約, 再三重複. 車夫付牛於京裏主人, 更從後門而來. 女倚門苦待, 盛饋夕飯. 仍請權, 破笠鶉衣, 脫却一邊, 同臥錦褥, 其淫戲不可形言.

그녀는 따라 나가서 대문을 굳게 잠그고 들어오더니 즉시 차부를 다락에서 맞아내려 다시 한판 일을 벌이는데 아까보다 더욱 맹렬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피곤하여 바로 툴아떨어졌다. 차부는 잠이 들지 못하고 등불 아래서 뒤척뒤척하다가 문득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저의 남편이 나보다 백배나 훌륭하고 나는 한갓 지나가는 사람인데 무단히 끌어들여 이런 음란한 짓을 하다니, 이는 오로지 음욕 때문이다. 아까 남편이 백방으로 달래도 안 들은 것은 내가 다락에 있어서겠지. 저의 부모가 부부로 맺어주었거늘 추행이 이와 같다니. 사람이란 의리가 있는 법인데 더구나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서 어찌 그대로 두겠느냐.’ 차부는 드디어 칼로 여자를 찔러죽이고 닭이 울기를 기다려서 도주했다.²²⁾

차부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동침을 청하는 여성을 받아들였으면서, 집에 다녀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도덕적으로 변한다. 자신이 의리있는 사람으로 여성의 음욕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며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방적인 단죄를 실행한다. 즉 유부녀의 정욕은 실현되기는 하지만 곧 이성적으로 자각한 남성인물에 의해 징치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여인의 살해범으로 체포된 것은 다음아닌 본 남편이다. 고문을 당하다가 첩의 사주로 처를 죽였다는 거짓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 차부는 그 남편이 사형을 당하게 된 데에 책임을 느껴 관청에 자수를 한다. 그런데 판관은 그가 음녀를 죽이고 무고(無辜)한 자를 살렸다면 의인(義人)으로 인정하고 면천(免賤)시켜 주기까지 한다. 즉 차부의 의협심만을 강조하고, 간통하고서 처벌의 목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그의 분열적

22) 『이조한문단편집』 1, 430~431쪽. 女隨後，堅閉外門，卽復迎下鎖樓車夫，復事淫亂，比前尤甚，仍困而先睡。車夫不能卽睡，對燈輾轉，忽心悟曰：“本夫百勝於我。且吾乃行人，而無端招入，作此大淫。此專由於淫慾，而俄者本夫百計不聽者，吾在樓上故也。且渠之父母，定給夫婦，而醜行若此，人有血氣，況復目擊，寧可置之。”遂刃殺之，待鷄而走。

태도에는 침묵한다. ‘음녀’ 한 사람만을 배척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다시 봉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남편을 둔 여성의 일탈은 악한 것,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들의 위치는 도덕적으로 모호하여 교화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진다. 이들은 욕망을 실제로 실현했고 그 과정이 무질서했기 때문에, 다시 정숙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며 가부장제에 포용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성을 둘러싼 여러 유동적인 상황, 즉 성적 욕망과 그 표출을 유가적 도덕률로만 제어할 수 없는 현실 자체에 대한 사대부 남성들의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혼란의 책임을 하층 신분과 여성들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배타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사대부 계층과 남성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4. 지속가능한 욕망 추구하고 재가(再嫁)에 대한 용인

마지막으로 살펴 볼 것은, 기혼 여성이지만 성적 대상으로서의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정욕 표출에 관해서이다. 바로 환관(宦官) 처와 과부들이다. 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금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사족 여성이 과부가 되는 경우, 조선후기 열절(烈節)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재가(再嫁)에 대한 금기가 작동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있다는 점에서, 환관(宦官) 처의 정욕은 문제적이다. 『청야담수』와 『계서야담』, 『기문총화』 등에 실린 ‘환관 처의 연정을 거절한 이생’ 이야기를 보자. 참의(參議) 홍원섭(洪元燮)이 소싯적에 이생(李生)이라는 사람과 함께 장동(壯洞)에 집을 얻어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환관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옆집에 사는 한 내시의 아내가 담장 구멍을 통해 이생에게 편지를 보낸다.

홍공은 마침 밖에 나가고 이생이 혼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담장 구멍으로 종이 한 장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생이 괴이하게 여겨 살펴보니 언문으로 된 편지였다. “첩은 환관의 처이온데, 나이가 삼십이 가깝도록 음양의 이치를 모르온즉 종신의 한이 되었습니다. 오늘밤은 마침 조용하니 원컨대 담을 넘어 찾아와 주소서.”²³⁾

자기 몸의 욕구를 정확히 표현하며 음양의 이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용건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던 미혼 여성들의 구애가 정서적인 면을 포함한다면, 이쪽은 성적인 요구로 직진하는 모양새다. 이생은 환관을 찾아가 이 일을 일러바치고, 여인은 그날 저녁 목을 매어 죽는다. 절대적인 금기와 실제적인 처벌이 있었다기보다는, 성적으로 소외된 처지에 있으면서도 음행(淫行)을 지적받은 수치심과 자신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죽음이다. 이생은 그해 가을 늦장마에 집이 무너져 깔려 죽는다. 서술자는 여성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생의 태도를 지적한다. 다만 남성의 신분이 양반이라는 점이 내시 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잡기고담(雜記古談)』의 <환처(宦妻)>에서는 여성이 욕망하는 남성의 신분이 사대부가 아니다. 또 남성인물에 의해 욕망이 좌절되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충청도 공주의 구리내라는 마을에 한 노부

23) 『계서야담』, 39~40쪽. 洪公適出他, 李生獨坐, 見前面牆穴, 有一紙漸次出來. 李生怪而見之, 則諺文也. 以爲‘妾乃宦侍之妻也. 年近三十, 嘗不知陰陽之理, 是爲終身之恨. 今夜適從容, 願踰牆而來訪也.’

부가 살았는데 매우 부유하고 아들들도 모두 관아의 장교였다. 영감은 관아에 재물을 바치고 당상관 직첩을 받아 지역에서 어른 대접을 받았다. 한 길손이 호서 지방에 논밭이 있어 왕래하는 길에 노부부의 집에서 자주 숙박하였다. 노부인이 어느 날 길손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에 스님과 간음한 일이 있다며 자신의 내력을 말해준다.

나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숙모 손에서 자랐다. 외숙모는 나를 동정하지 않고 하필 내시에게 시집보냈다. 내시는 첫날밤에 내 옷을 벗겨 온몸을 드러나게 한 다음 젖가슴과 배꼽을 어루만지며 혀와 입술로 훑었다. 나는 그때 나이 겨우 열여섯이라 남녀가 혼인하면 으레 이러는 줄 알았다. 그 후 점차 애정의 문이 열림에 그런 행동이 아주 괴롭게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갔다. 동침할 적이면 언제나 원한과 분노가 가슴에 차올라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 매양 화창한 봄날을 만나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고 피꼬리와 제비가 짝을 불러 우는 때면, 베개에 기대 하품하며 마음이 동요하여 저절로 이런 생각이 일었다. ‘아무리 화려한 비단이불에 맛있는 음식이 넘쳐난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허름한 집에서 진짜 대장부와 함께 반쪽의 베이불을 덮고 쓴 나물이나마 먹는다면, 이야말로 인생의 지극한 낙이 아닌가. 내 몸은 아직 처녀라. 다른 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절개를 잃었다 할 것이 무엇이냐.’²⁴⁾

여인은 환관의 성노리개가 되어 괴로움을 당하지만 자신의 정욕을 실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서, 자신이 육체

24) 임형택 역, 『한문서사의 영도』 2, 태학사, 2012, 56쪽. 早失父母, 育于舅妻. 舅妻不加憐愛, 以我嫁于內官爲妻. 初婚之夜, 解衣親膚, 撫弄乳臍, 舐吮脣舌. 老身伊時, 年纔十六, 意謂男女枕席, 祇如是耳. 其後情竇漸開, 而漸覺厭苦, 久而轉甚. 時值欲與同枕, 則冤憤填胸, 或至涕泣. 每當春陽和暢, 蜂蝶悠揚, 罵鴛流聲, 欹枕欠伸, 情思蕩深, 默想重重‘錦繡玉飯, 於我何關? 葦屋之下, 與眞個丈夫, 共圍半幅布衾, 共咬一莖菜根, 實人生至樂也. 我身尙處子也, 奔于他家, 寧爲失節!’

적으로 처녀이니 정절(貞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금기 위반에 대한 나름의 대응 논리이며, 욕망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위반의 형식이지만 스스로 그것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있다. 혼인날을 받아놓고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과부가 되어 평생 수절해야 했던 여성들의 태도와 대비된다.

여인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 동작나루를 건넌 후 갈 길을 고민한다. 자신의 몸은 처녀이지만 이미 머리를 엇었으므로 자신을 정실로 맞이할 사람은 없다. 일반인의 첩이 되어 본처의 질투를 견디며 살긴 싫어서 중을 만나 그의 본처가 되기로 결심한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타협이다. 여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중을 훑쳐보며 깨끗하게 생긴 데다가 나이도 비슷하여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라고 여기지만, 중은 빠른 걸음으로 여인을 피해 다닌다. 그녀는 중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성적인 결합을 추구한다. 중은 단단히 잡힌 손목을 빼내지 못하고 놓아달라고 애걸한다.

“스님, 앉으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소. 스님은 중노릇하기가 정말 좋소? 나와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 내 보따리 속에 수백 냥의 재물이 있으니, 스님은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을 게 아니오. 이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중은 이 말을 듣더니 문득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목이 메어, 머리를 숙인 채 눈물만 줄줄 흘리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처럼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나는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와 저리로 갑시다.”하고 그를 끌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몸을 꼭 끌어당겨 교합하도록 했다. 그는 정욕이 발동하였으나 몹시 몸을 떨면서 삼시간에 끝내고 말았다.²⁵⁾

25) 『한문서사의 영토』 2, 59쪽. “師且坐. 我有說話. 師爲僧有何好? 與我爲夫婦居生, 則我包裹中, 約有數百, 師得妻, 又得財, 不亦樂乎?” 僧忽聞此言, 紅潮漲面, 喉吻如噎, 只俛首涕泣, 有若小孩子可矜. 我引手拭其面, 謂之曰: “與我就彼.” 摟之入林中, 緊抱而臥, 使之合. 此際僧情動, 但戰棹甚, 霎時而罷.

이 노부부의 인연은 환관의 처와 중으로 야합(野合)한 데서 시작되었다. 여인이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은 대단히 노골적인 데 반해, 남성의 소극적이고 나약한 태도가 여성의 적극성과 주체적 태도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다. 중은 간통의 대상으로서는 징치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는 여성에게는 그녀의 욕망을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중은 유가적 도덕률에서는 자유로운 인물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이 여성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논리로서이다. 여성은 보따리 속에 있는 수백 냥의 재물로 남성을 설득하고 있다. 여인은 이들의 결합에 대한 시어머니의 반대를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중의 신분으로 절에 의지하여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것이 여성의 물적 토대에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스승 스님의 생활비 및 빚 변제 요구에 대해 폭력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처신을 보인다. 여성의 적극성은 이후 재산을 불리고 집안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 내력을 들은 길손은 후일 다른 길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말해준다.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은 환관들의 성적 탐욕을 강조하며 그들을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 타자화시킨다. 또 다른 길손은 성적 욕구에 대한 환처들의 한을 언급하고, 내시가 아내를 두는 것을 금하는 국법을 다시 실행하여 환처들을 젊은 중들과 짝을 맺어주면 원한을 풀어주고 장정을 늘릴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다른 길손은 과부의 몸으로 사마상여(司馬相如)에게 시집 간 탁문군(卓文君)에 견주면 실절(失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처의 경우가 오히려 낫다고 평가한다. 모두 환관에게서 도망친 여성을 음분(淫奔)한 것으로 책망할 수 없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성 주인공의 당돌한 고백은 선비들의 이러한 평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즉 여기서 경제적 절박성과 정치적 유용성 같은 필요성에 의해 금기가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되는 것이다.²⁶⁾

야담에는 시대이나 친정 식구들이 다른 남자를 정해 과부를 혼인시키는 이야기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조한문단편집』 1권의 제2부에 실려 있는 <피우(避雨)>, <심심당한화>의 제3화 ‘석주(石洲) 권필(權驥)’의 이야기, <청상(淸孀)>, <태학귀로(太學歸路)>, <말[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의환(義宦)>은 한 환관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의 장래를 위해 한 선비와 혼인시키는 이야기이다. 이는 지인지감(知人知鑑)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당시 열녀 문제 및 열녀 담론과 맞물려 논의되기도 했다. 여성의 정욕을 긍정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인정하는 이야기들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청상(淸孀)과부로 형상화된다. 혼인의 절차는 거쳤지만 아직 육체적으로 순결한 여성이 주인공이다. 환처 역시 이러한 구도 안에서 서사전략상 선택된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들에게 형식적인 남편이 있지만 실질적인 성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외간 남자에 대한 정욕 표출이 용인될 수 있으며, 여기까지가 서사 내에서 여성 정욕 표출의 허용 범위가 된다. 환처나 과부의 경우라면 재가의 과정이나 절차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인정상 포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부들이 재가(再嫁)하는 서사에도 전 시대이나 친정의 재력 및 연줄을 이용해 상대 남성이 생활에 안정을 찾고 과거에 급제하는 등 부귀해지는 이야기가 많다는 점이 중요하다. 환처나 과부의 정욕을 인정하고 그 표출을 인간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것에는 여성의 정욕 충족과 재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대가성²⁷⁾이 큰 조건이 되고 있다. 유교 이념에

26) Michel Foucault, 앞의 책, 43쪽 참조.

27) 예를 들어 『계서야담』 등에 실린 ‘환관 처와 통한명(趙顯命)’ 이야기는 환관 아내와 정을 통함으로써 환관과 연줄을 만들어 과거에 합격한다는 내용이다. 즉 남성

기반한 예교가 성적 관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지만, 이 지점에 와서는 틈새가 생기는 것이다. 서사의 목적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해 재가리는 형식을 향한다. 그 대상이 환처나 과부로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윤리의식 대신 인간 욕망에 대한 긍정과 교환되는 경제적 논리가 개입하며, 남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별다른 갈등 없이 서로의 욕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나가는 말

가부장제와 유교적 예교에 따른 성적 제도화와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 속에서도 여성이 적극적으로 정욕을 표출하는 이야기는 왜 계속 생산되었는가? 여성의 성애를 둘러싼 금기와 위반, 그리고 처벌의 형식은 서사에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왜 사대부들은 계속해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즉 여성 정욕에 대한 이야기는 이념과 현실, 이성과 본능, 금기와 위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단한 밀고 당기기와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인 본능을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고백하거나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구애하는 처녀들의 이야기에서 욕망의 대상은 주로 사대부 남성이다. 대개 사족 출신인 이 여성들은 상대 남성의 거절로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며, 대신 남성의 훈육을 통해 사전에 교화되고 그 실현을 차단당한다. 그러나 여성이 상심하거나 열정을 이기지 못하여 교화되지 못한 상태로 죽음에

이 여성의 정욕을 이용해 영달하는 이야기로, 여성의 정욕을 충족해 주고 대신 과거 합격이라는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르기도 하며, 이는 유가적 예교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드러낸다. 외간 남자와 간통하며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유부녀들은 비교적 신분이 낮은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의 욕망은 무질서하고 음란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 역시 낮은 신분의 남성이다. 간통을 저지른 남녀들은 욕망을 실현한 후에 목격자나 남편에 의해 징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징치의 명분은 유가적 도덕률이나 정의의 실현이다. 그러나 본능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이성적으로 자각하는 남성 인물에 의해 징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고 균열적인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욕망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환관의 처와 과부들의 이야기도 있다. 기혼 여성이면서도 성적 대상으로서의 남편이 부재한 경우, 여성의 성적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긍정되며,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해 여성의 재가도 용인된다. 그런데 여성의 정욕 충족과 재가 과정에서 그 대가로 남성에게 경제적 보상 등 물적인 조건이 제시된다. 서사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그 신분이나 처지가 한정적이거나 서사전략으로 선택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더 이상 성적 관행을 지배하는 것이 유교적 예법과 윤리의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 정욕의 표출에 대한 서사는 여러 유동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며, 금기의 위반은 가부장제와 유교적 예교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인되고, 대부분 윤리적인 결말을 지향하여 갈등의 봉합을 추구하지만 균열적인 지점을 드러낼 때도 있다. 대상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남성중심적 시각을 보여주지만, 우회적으로라도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고 인정하고자 하였다. 또 여성의 성을 둘러싼 금기와 위반, 처벌의 형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그 서사적 변주와 당시의 성 담론을 보여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청구야담』(10권 10책),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 유몽인 지음, 신익철 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1~859쪽.
- 노명흠 지음, 김동욱 옮김,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 1~518쪽.
- 유하수 옮김,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1~772쪽.
- 이신성·정명기 옮김, 『양은천미』, 보고사, 2000, 1~382쪽.
- 임형택 옮김, 『한문서사의 영토』 2, 태학사, 2012, 1~558쪽.
-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1, 창비, 2018(개정판), 1~470쪽
-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4, 창비, 2018(개정판), 1~548쪽.
-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9~43쪽.
- 강진옥, 『유구형 원혼설화의 형성과정과 변모 양상』, 『한국문화연구』 4,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3, 7~47쪽.
- 곽정식, 『조선 후기 문헌설화에서 살펴본 여성의 烈과 性的 문제』, 『인문과학논총』 11-1,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5~48쪽.
- 김경미, 『조선 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127~153쪽.
- 이강욱,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175~217쪽.
- 진재교, 『조선조 후기 문예공간에서 성적 욕망의 빛과 그늘 - 예교, 금기와 위반의 拮抗과 그 辨證法』,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87~126쪽.
-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 - 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6, 국제어문학회, 2002, 53~90쪽.
-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a), 243~275쪽.
- 최기숙, 『‘사랑’의 담론화 방식과 의미론적 경계 - 18·19세기 야담집 소재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b), 305~348쪽.

Georges Bataille 지음,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2009(2판), 1~340쪽.

Michel Foucault 지음, 이규현 옮김, 『성(性)의 역사1-지식의 의지』, 나남, 2010.(3판), 1~192쪽.

ABSTRACT

Some Aspects of the Expression of Female Sexual Desire
in Yadam of the Late Joseon

Lee, Ju-young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aspec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active expression of female sexual desire in Yadam of the late Joseon and the story of reaction thereto. During that time, patriarchy and Confucian ideology controlled the sexual custom, however the stories were composed of taboo and violation surrounding female sexual desire. Also, such factors as marital status of women, male type for the target of sexual desire, social status of men and women, and the aspect of men's acceptance toward female desire, etc. form the stories variously. Accordingly, this research stereotyped and considered a few cases.

First, stories of unmarried women who actively confess their sexual instinct to men or directly go sweethearting. Target for desire are mainly the noblemen. Most of such unmarried women from scholars' family(士族) mostly fail in realization of love due to the men's refusal, instead, they are educated or reformed through the men's education. However, some women are brokenhearted or died due to the desire. Here, a sharp conflict appears around Confucian ethics.

Second, stories of married women who realize their sexual desire through adultery with another man. Their desire from rather lower social status is expressed like animal instinct and evaluated immoral by the observers. Target for desire is also the men from lower status. Men and Women who commit adultery are mostly corrected by the observers of their husbands after realization of desire. The purpose of such correction is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morality or justification. Nevertheless, it reveals contradictory and unstable point in respect that correction is performed by the male characters who suddenly realized rationally after

pursuit of desire.

Third, stories of the wives of eunuchs or widows, who search a new life to realize their desire. Particularly, female characters of 〈Hwancheo(宦妻)〉 actively fulfil their sexual desire, and the men's weakness highlights the women's independence. Desire of eunuchs' wives and widows is described positively, and remarriage is adopted for the sustainable realization. Here, matter of economic reward is introduced instead of morality or ethical consciousness, in such case, desire is realized without a special conflict as the interest between men and women matches well.

Target materials of this research mostly have men-oriented viewpoint onto female sexual desire, however, this research intended to express or acknowledge female desire, indirectly. Also,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hat it activated the discussion on the narrative variation and argument of sexual desire by variously suggesting the form of taboo and violation related to sexual love. That is, narration of the expression of female sexual desire introduces several fluid situations, and violation of taboo is tolerated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threaten patriarchy and Confucian ideology.

Key Words female sexual desire, taboo, violation, Confucian moral law, patriarchy, Yadam

논문투고일	: 2018.04.15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